



미래의 필수품, 로봇을 렌탈로...

글 _ 최은주 연구원 · 동향정보분석팀 · ejchoi@kisti.re.kr



20세기폭스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로봇'에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는 로봇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비록 어린이를 위해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었지만, 그 속에는 조만간 다가올 유비쿼터스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그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우리는 로봇을 아주 먼 미래의 존재로 상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로봇이 도시 우수관 속에 숨어 있는 알몸 도둑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로봇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계, 전자, 통신 등 첨단복합 기술의 총체인 로봇은 종류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 로봇은 1961년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사의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으로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하였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용하기 힘든 점 때문에 크게 확산 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10년간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로봇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한편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 로봇도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는데, 감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개인용 로봇을 비롯해 교육용 로봇, 오락용 로봇, 감성 로봇, 청소 로봇, 경비 로봇, 애완동물 관리 로봇 등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다.

+ 일본, 로봇산업 주도

세계 로봇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도 최근 들어 인간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로봇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5,000억 엔에 달하는 시장규모가 2010년쯤이면 10조 엔의 거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애완형 로봇인 '아이보', 몸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신해 물건을 가져오고 심부름도 가는 '템작4(일명 간호로봇)' 등이 있다. 20만 엔이 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아이보'는 10만대 이상 기록적인 판매율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로봇 제품은 비싼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2002년 혼다는 인간형 로봇 '아시모'를 기업 등에 빌려주는 로봇 렌탈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시모'는 창구 안내, 빌딩 순찰, 이벤트의 특별 게스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로봇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소에 로봇렌탈을 시작하였다. 2007년 6월 18일자 일본전지신문에 게재된 "로봇 '와카마루' 빌려 드려요"라는 기사는 미쯔비시중공업이 회사나 병원을 대상으로 정문에서 안내를 담당할 리셉션 서니스트 로봇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렌탈료는 하루 12만 엔이며, 3주~1개월가량 장기로 빌릴 경우에는 1일 2만 엔씩만 내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로봇이 점차적으로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로봇을 구입할 필요 없이 선택해 렌탈할 수 있는 로봇 렌탈 사업이 일본에서는 크게 호응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URC(Ubiquitous Robot Companio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가의 로봇 구입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로봇 렌탈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로봇 산업이 초기 단계이고 산업용 로봇 및 기업용 로봇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국내 로봇 렌탈 사업, 태동 기미

국내의 로봇 시장을 살펴보면 아직은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이며 서비스 로봇에 대한 시장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